

추자면(楸子面)과 지명

오 창 명*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추자면(楸子面)과 추자도(楸子島)
3. 추자면의 지명 목록
4. 추자면의 마을 이름
5. 추자면의 섬[島]·여[嶼] 이름
6. 기타 이름
7.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옛 문헌과 옛 지도에서 확인되는 추자면의 마을 이름과 섬 이름, 여 이름 등을 연구한 것이다. 민간의 음성형을 조사하여 차자표기로 쓰인 추자면 지명을 대응시켜 본디 음성형을 찾고 그 뜻은 무엇인가를 구명한 것이다.

추자면(楸子面)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속한 읍면 중 하나로, 전라남도과 제주도의 중간 바다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추자면에 대해서 생활문화가 다르다, 자료가 적다는 등의 이유

* 전남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로 연구가 소홀했다. 그러다보니 추자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또한 몇몇 향토학자들에 의해서 추자도에 대한 조사와 수집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연구에 이용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았다.

특히 근래에 추자면 사수도(斜藪島)가 완도군 관할 섬이라는 주장을 펼 때도 역사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해에 북제주군의 지원에 따라 필자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추자도와 사수도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냈다. 필자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자도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추자면과 관련된 지명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이 글에 반영하였다.

2. 추자면(楸子面)과 추자도(楸子島)

추자면(楸子面)은 상추자도(上楸子島)와 하추자도(下楸子島)를 비롯한 주변의 섬을 포함한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자도(楸子島)는 고려시대 때 탐라현(耽羅縣)에 속하고, 조선시대 때도 한때 제주목(濟州牧)에 속했다. 그러나 17세기에서 19세기 중후반까지 전라도(全羅道) 영암군(靈巖郡)에 속했다가 고종 21년(1884)에 다시 제주목에 환속했다. 1894년에는 추자도를 해남현으로 이속하였다. 1896년부터 추자도 일대는 완도군 관할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완도군 추자면과 보길면 안의 횡간도(橫干島)를 제주군에 이속시켰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추자면 일원은 ‘제주군(濟州郡)>제주도(濟州島)>제주도(濟州道)’ 관할이 되었다.

추자도(楸子島)는 『태조실록』(1년 7월 기유)에 楸子島(추자도)로 표기되었다. 『고려사』(권57, 지 제11, 탐라현)를 보면 탐라현(耽羅縣)에 속한 것으로 나오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원진 『탐라지』 등에도 제주목(濟州牧)에 속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태조실록』(권10 5년 7월 기묘), 『태종실록』(권11, 6년 3월 경신) 『세종실록』(권61, 15년 8월 정축 ; 권151, 지지리, 전라도, 나주목, 해진군)과 『효종실록』(권15, 6년 7월 병오), 『현종실

록』(권7, 4년 10월 경신), 『정조실록』(권41, 18년 12월 무인), 『순조실록』(권6, 4년 11월 무신), 『철종실록』(권5, 4년 11월 무진) 등에 '전라도'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영암군(靈岩郡) 추자도(楸子島), 영암(靈岩) 추자도(楸子島)'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와 후기까지도 추자도는 제주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전라도 또는 전라도 영암군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권151권,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해진군)에 '舟子島(주자도)'가 보여, 당시 舟子島(주자도)가 해진군(海珍郡: 해남군의 전신)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楸子島(추자도)는 濟州牧(제주목)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근대에 楸子島(추자도)는 17세기 중반부터 전라도 영암군에 속했다. 『효종실록』(권15, 효종 6년 7월 병오)에 '靈巖郡 楸子島(영암군 추자도)', 『현종개수실록』(권9, 4년 10월 경신)에 '靈巖 楸子島(영암 추자도)'라 하였다.

18세기 말에 전라도 영암군은 18면(面) 2도(島: 諸島面과 西島面) 548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당시 추자도(楸子島)는 영암군 西島面(서도면)에 속했다. 당시 추자도 마을은 '楸子(추자-지금 대서리 일부), 磧草(여초: 지금 예초리), 新基(신기: 새터-지금 신양1리), 長作之(장작지: 진작지-지금 신양2리), 墨只(묵지: 무기-지금 묵리), 寺仇味(사구미: 절구미-지금 영흥리), 大作之(대작지: 큰작지-지금 대서리 일부)' 등 7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1789년의 『호구총수』 전라도 영암).

1872년 『영암추자도지도(靈巖楸子島地圖)』를 보면, '楸子上島(추자상도)'에 '大作只(대작지: 큰작지)와 '寺口味(사구미: 절구미)'가 있고 '楸子下島(추자하도)'에 '墨只(묵지: 무기)', '長作只(장작지: 진작지)', '於伊今(어이금: 어리금·어리구미)', '禮草(예초: 예초)' 등 6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橫干島(횡간도)'는 당시 보길면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추자도는 고종 28년(1891)에 다시 영암군에 편입되고 고종 32년(1895: 1895년 5월 26일자 칙령제101호)에는 부제(府制) 실시로 신설된 나주부(羅州府) 완도군(莞島郡)에 편입되었다. 이때 대서리(大西里), 사동(寺洞), 묵리(默里), 예초리(禮草里), 신상리(新上里), 신하리(新下里), 장작지(長作只), 橫干島(횡간도) 등 8개의 마을이 있었다. 건양 원년(1896) 도제(道制) 부활로 전라남도 완도군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1909)』를 보면, 당시 완도군(莞島郡) 추자면(楸子面)에 ‘西村(서촌: 지금 대서리 일부), 寺洞(사동: 지금 영흥리), 大作只(대작지: 지금 대서리 일부), 新上里(신상리: 지금 신양1리 일부), 默里(묵리: 지금 묵리), 禮草(예초: 지금 예초리), 鳳頭山(봉두산: 봉골레산), 大草津(대초진: 대초나무), 堂口浦(당구포: 큰작지 포구), 新基浦(신기포: 신상리 포구), 津頭峙(진두치)·나리머리지, 風峙(풍치)·바람지’ 등으로 표기되어, 6개 마을을 확인할 수 있다.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군 추자면(楸子面)과 완도군 보길면(甫吉面)의 안의 횡간도(橫干島)를 병합하여 다시 전라남도 제주군(濟州郡)에 편입되어 추자면(楸子面)이라 하였다. 이때 대서리(大西里), 영흥리(永興里), 묵리(默里), 예초리(禮草里), 신양리(新陽里), 횡간도(橫干島) 등 6개 마을 5개 행정리가 있었다.

1915년 5월 1일부터 도제(島制)가 실시되어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추자면이 되었다. 1946년 8월 1일부터 이후 계속 제주도가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도제(道制)와 군제(郡制)가 실시되어 제주도(濟州道) 북제주군(北濟州郡) 추자면이라 하였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제주시 추자면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추자도는 『세종실록』(권61 15년 8월 정축)과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해진군) 등에서 ‘舟子島(추자도)’로도 표기된 것으로 보아, 옛 음성형은 ‘주자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舟子(주자)와 楸子(추자)는 음가자의 결합 표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楸子(추자)를 한자의 뜻 그대로 해석하여 ‘개오동나무’나 ‘가래나무’와 관련시켜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서 ‘上楸子島(상추자도), 下楸子島(하추자도), 多務來味(다무래미), 大西里(대서리), 永興里(영흥리), 墨里(묵리), 新陽里(신양리), 新下里(신하리), 新上里(신상리), 長作只(장작지), 石頭里(석두리), 禮草里(예초리)’ 등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당시 5개의 행정마을(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리, 예초리)과 7개의 자연마을(큰작지, 절구미, 무기, 진작지, 얼구미, 아랫동네, 얼그미, 윗동네, 석지머리)이 있었다.

5개 행정마을은 1980년대까지 이어오다가 1988년부터 新上里(신상리: 얼그미 윗동네)와 新下里(신하리: 얼그미 아랫동네)를 합하여 신양1리(新陽一里)라 하고 장작리(진작지)와 석두리(석지머리)를 합하여 신양2리(新陽二里)라 했다. 오늘날 1:5,000 지형도를 보면 신양2리에 '진작지'라 표기 했는데 고유 이름을 살린 것이다.

2006년 8월 현재 대서리(大西里), 영흥리(永興里), 묵리(默里), 예초리(禮草里), 신양1리(新陽一里)와 신양2리(新陽二里) 등 6개의 법정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3. 추자면의 지명 목록

추자면의 마을과 소지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楸子島(추자도), 身島(신도), 淸路島(청로도), 知道島(지도도), 草蘭島(초란도), 愁德島(수덕도), 斜餘鼠島(사여서도), 斜鼠島(사서도), 大火脫島(대화탈도), 小火脫島(소화탈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산천>

楸子島(추자도), 淸路島(청로도), 知道島(지도도), 草生島(초생도), 雄原島(웅원도), 麝鼠島(사서도), 東餘鼠島(동여서도), 斜鼠島(사서도), 大化奪島(대화탈도), 小化奪島(소화탈도)

<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산천>

楸子島(추자도), 淸路島(청로도), 知道島(지도도), 草蘭島(초란도), 雄原島(웅원도), 愁德島(수덕도), 東餘鼠島(동여서도), 麝鼠島(사서도), 斜鼠島(사서), 大火脫島(대화탈도), 火脫(화탈), 小火脫島(소화탈도)

<유형원 『동국여지』, 제주목, 산천>

楸子(추자: 지금 대서리 일부),²⁾ 映草(*여초: 지금 예초리), 新基(*신기: 새터—지금 신양1리), 長作之(장작지: 진작지—지금 신양2리), 墨只(묵지:

무기—지금 묵리), 寺仇味(사구미: 절구미-지금 영흥리), 大作之(대작지: 큰작지—지금 대서리)

<1789년의 『호구총수』 전라도, 영암군, 西島面>

楸子上島(추자상도: 지금 상추자도), 大作只(대작지: 큰작지-지금 대서리), 寺口味(사구미: 절구미-지금 영흥리) / 楸子下島(추자하도: 지금 하추자도), 墨只(묵지: 무기-지금 묵리), 長作只(장작지: 진작지-지금 신양2리 일부), 於伊今(어이금: 어리구미-지금 신양1리 일부), 禮草(예초: 예초-지금 예초리 일부) / 橫千島(횡간도)

<1872년 「영암추자도지도(靈巖楸子島地圖)」>

楸子面(추자면), 西村(서촌-지금 대서리 일부), 寺洞(사동-지금 영흥리), 大作只(대작지-지금 대서리 일부), 新上里(신상리-지금 신양1리 일부), 新基浦(신기포: 새터개-지금 신양1리 포구), 津頭峙(진두치)나리머리지, 風峙(풍치)바람치

<『조선지리지자료(1909)』>

완도군 보길면 橫千島(횡간도)

완도군 楸子面(추자면), 禮草里(예초리), 新上里(신상리), 新下里(신하리), 長作只(장작지), 默里(묵리), 寺洞(사동), 大西里(대서리)

<1912년 행정구역>

제주군 楸子面(추자면), 大西里(대서리), 永興里(영흥리: 寺洞), 默里(묵리), 禮草里(예초리), 新陽里(신양리: 新上里, 新下里, 長作只)

<1914년 행정구역>

楸子面(추자면), 上楸子島(상추자도), 下楸子島(하추자도), 楸子港(추자항), 多務來味(다무래미), 大西里(대서리), 永興里(영흥리), 墨里(묵리), 新陽里(신양리), 新下里(신하리), 新上里(신상리), 長作只(장작지), 石頭里(석두리), 禮草里(예초리), 直龜(직구), 空嶼(공서), 樂生伊(악생이), 水橫島(수

2) ‘楸子(추자: 지금 대서리 일부)’의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의 해독과 추단 것이다. 이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령도), 梧洞嶼(오동서), 秋浦島(추포도), 廉島(염도), 禮島(예도), 劔膽嶼(검등서), 黑劔島(흑검도), 甌嶼(증서), 加仁嶼(가인서), 納德島(남덕도), 斗橫嶼(두령서), 床島(상도), 穴島(혈도), 鬍島(돌도), 望島(망도), 牛頭(우두), 牛鼻(우비), 水管嶼(수영서), 塘島(섬도), 外蒼島(외곽도), 靑島(청도), 水德島(수덕도), 方嶼(방서), 海岩嶼(해암서), 華島(화도), チョルメー(조르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

大西里(대서리), 橫千島(횡간도)·비개너, 楸子港(추자항), 多務來味(다무래미)·따무내미, 水橫島(수령도)·수령섬, 樂生伊(악생이)·악생이, 空嶼(공서)·공여, 直龜(직구), 鹿嶼(녹서)·노른여, 門嶼(문서)·문여, 黑劔島(흑검도)·검운가리, 周嶼(주서)·검동여

黙里(묵리), 靑島(청도)·푸래너, 塘島(섬도)·섬생이, 水管嶼(수영서)·수영여
新陽里(신양리), 新上里(신상리)·웃동리, 新下里(신하리)·아릿동리, 長作只(장작지)·진작제, 石頭里(석두리)·석죽머리, 牛頭(우두)·쇠머리, 水德島(수덕도)·수덕이·獅子島(사자도), 外蒼島(외곽도)·밭미역섬, 조르매·질맹여, 大華島(대화도)·큰과탈, 小華島(소화도)·저근과탈

永興里(영흥리), 廉島(염도)·염섬, 禮島(예도)·이섬, 劔膽嶼(검등서)·검등여, 納德島(남덕도)·남덱이, 斗橫嶼(두령서)·두령여, 蒼島(곽도)·미역섬, 甌嶼(증서)·시리섬, 鯨嶼(경서)·고래섬

禮草里(예초리), 加仁嶼(가인서)·게린여, 床島(상도)·상섬, 鬍島(돌도)·덜섬, 望島(망도)·보른섬, 穴島(혈도)·구멍섬, 牛鼻(우비)·쇠코, 方嶼(방서)·모녀, 獐水島(장수도)·泗水島(시수도), 秋浦島(추포도)·추가리, 梧洞嶼(오동서)·오동여

<1959년 추자도 지명>3)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추자도의 마을과 각 마을에 속한 소지명을 언급하고 한자 표기의 해독과 함께 그 음성형과 뜻을 밝히고 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3) 이것은 최근까지 추자면사무소에 보관되었던 1959년 『地名制定書類綴』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 철의 ‘多務來味(다무래미)·따무내미’는 한자로 쓸 때 多務來味(다무래미)로 쓰고, 고유어로 부를 때 ‘따무내미’라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필자의 해독이 아니라 당시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4. 추자면의 마을 이름

① 대서리(大西里)

대서리는 추자도 서쪽에 있는 상추자도 서북쪽 해안 마을로, 대서리 북서쪽에 있는 유인도(有人島)인 ‘빗겐이’[橫干島]와 ‘따무내미’를 비롯한 무인도 10개 등을 아우르고 있다. 추자항을 거느리고 있는 추자도의 관문이자 중심마을로, 추자면사무소와 추자수협, 추자초등학교 등이 있다.

최영장군 신사가 있는데, 1872년의 「영암추자도지도」에는 ‘崔瑩將軍 神堂(최영장군신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늘날 현판(懸板)에는 ‘崔瑩將軍 神祀(최영장군신사)’로 표기되고, 뜻돌에는 ‘崔瑩將軍 祠堂(최영장군 사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1970년에 건물이 복원되고 1971년에 제주도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된 뒤 1974년에 단청 및 담장을 보수하여 유지하고 있다.

대서리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에 밀양 박씨(密陽 朴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하였다고 한다. 그 후 전주 이씨(全州 李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남양 홍씨(南陽 洪氏), 원주 원씨(原州 元氏), 추계 추씨(秋溪 秋氏), 제주 고씨(濟州 高氏), 해주 최씨(海州 崔氏), 충주 지씨(忠州 池氏), 진주 강씨(晉州 姜氏), 전주 추씨(全州 秋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추자도에 사람이 살았던 기록은 적어도 『고려사』와 『태종실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서리 ‘뒷멘[後浦]’ 매주박산 중턱에서 확인되는 고인돌군과 선돌 등을 고려할 때 일찍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횡간도(橫干島)는 18세기 초반에 강씨가 설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후 19세기 중반에 달성 서씨(達成 徐氏)와 김해 김씨(金海 金氏), 전주 이씨(全州 李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대서리(大西里)는 18세기에는 大作之(대작지: 『호구총수』)로 표기되고 19세기에 ‘大作只(대작지: 『영암추자도지도』)’로 표기되었는데 모두 ‘큰작지’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대서리 추자항 일대를 ‘큰작지·큰짜짜’라 불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서리의 옛 이름은 ‘큰작

지'이다. 그 옆에 '작은작지·작은작찌'도 있었다. '작지·작찌'는 '자갈'을 이르는 추자방언으로, '작제'라고도 한다. 바닷가에 '큰 작지'(큰 자갈)가 널려있다는 데서 '큰작지·큰작제'라 부른 것이다. 대서리 포구가 추자항으로 개발되면서 '작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당시 '봉골래산[鳳頭山]' 서쪽 바닷가(뒷멘)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은 '西村(서촌)'이라 했다.

19세기 말에 '大作只(대작지: 큰작지)'와 '西村(서촌)' 일대는 '大西里(대서리)'로 마을이름을 바꾸었다. 당시 '큰작지'를 표기한 大作只(대작지)의 大(대)와 '봉골래산' 아래쪽의 '西村(서촌)'의 西(서)를 조합하여 만든 이름이 大西里(대서리)이다. '큰작지' 일대(지금 추자항 일대)는 일찍부터 마을 서쪽을 '큰작지', 동쪽을 '작은작지'라고 했다. '큰'은 大(대), '작은'은 小(소)로 표기했다. 한편 '당그미·당기미'로도 불렀다고 하는데 '堂(당)'은 최영 장군 사당을 이르고, '그미·기미'는 '샘물' 또는 '물가' 일대를 뜻하는 추자방언이다.

2006년 8월 현재 대서리는 本洞(본동)과 橫干島(횡간도) 등 2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대서리에는 '따무내미'를 비롯하여 '악생이, 수령여, 공여, 염여, 이섬, 오동여, 두령이, 납덕이, 개린여, 검은가리' 등의 섬 또는 여가 있다.

② 영흥리(永興里)

영흥리는 추자도 서쪽에 있는 상추자도(上楸子島)의 남쪽 해안 마을이다. 영흥리에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9호인 '추자 처사각(楸子 處士閣)'과 '박씨 순효각(朴氏 純孝閣)' 등이 있고 추자항을 끼고 있다. 조선 후기에 '진사(鎭舍)'가 있었다.

영흥리는 17세기 중후반에 밀양 박씨(密陽 朴氏)와 전주 이씨(全州 李氏) 등이 들어오면서 설촌하였다고 한다. 그 후 초계 최씨(草溪 崔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인동 장씨(仁同 張氏), 창원 황씨(昌原 黃氏), 진주 강씨(晉州 姜氏), 충주 추씨(忠州 秋氏), 강릉 유씨(江陵 劉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1789년의 『호구총수』(전라도 영암)에는 '寺仇味(사구미)'로 표기되고 1872년의 『영암추자도지도』에서 '寺口味(사구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절구미’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 남아 있는 ‘절구미·절기미·절그미’ 또는 ‘절골’ 등에 바로 대응하는 표기이다. 1895년부터 寺洞(사동: 절골)으로 표기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1909)』에도 ‘寺洞(사동)’으로 표기되었다. 1913년 면리(面里) 통폐합 때 ‘永興里(영흥리)’로 고쳐 표기하였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永興里(영흥리)’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영흥리의 옛 이름은 ‘절구미·절기미·절그미’ 또는 ‘절골’이었다고 한다. ‘절’은 ‘寺(사)’를 뜻하는 말인지 확실하지 않다. ‘구미·그미·기미’는 ‘물’이나 ‘샘’과 관련된 말이다. 이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절구미·절그미’ 또는 ‘절골’이라 부르고 이를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 寺口味(사구미) 또는 寺谷(사곡: 절골)·寺洞(사동: 절골)이다.

1895년부터 이 마을을 사동(寺洞)으로 쓰다가 1914년 동리 폐합 때 ‘영흥리’(永興里)라 하였다. 이것은 ‘영원히 흥왕(興旺)하라, 기리 흥왕하라’는 뜻으로 새로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③ 묵 리(默里)

묵리는 하추자도(下楸子島) 서북쪽 바닷가 일대에 있는 마을이다.

묵리는 19세기 후반에 정씨와 조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손은 없다. 그 후 김해 배씨(金海 裴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해남 윤씨(海南 尹氏), 밀양 박씨(密陽 朴氏), 제주 고씨(濟州 高氏), 청주 한씨(淸州 韓氏), 함안 조씨(咸安 趙氏), 영양 천씨(潁陽 千氏), 인동 장씨(仁同 張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호구총수』를 보면 18세기 후반에 墨只(묵지)라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적어도 17세기에는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묵리 옛 이름은 ‘무기’로 실현되고, 나중에는 소리가 변하여 ‘미기’로도 실현되었다. 1789년의 『호구총수』(전라도 영암)와 1872년의 『영암추자도지도』 등에서 ‘墨只(묵지)’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墨只(묵지)는 ‘무기’의 한자차용표기이다. 墨(묵)은 ‘묵’의 음가자 표기이고 ‘只(지)’는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묵리’의 옛 이름 ‘무기·미기’의 ‘기’는 ‘물’과 관련되는

옛말이라고 한다. ‘묵리’로 넘어가는 언덕을 ‘무기재’라고 하므로 예로부터 ‘무기·미기’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민간에서는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므로 ‘묵이’라고 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18세기 말부터 ‘墨只(묵지)’는 ‘墨里(묵리)’로 표기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1909)』에 ‘默里(묵리)’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부터 墨里(묵리)는 默里(묵리)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默里(묵리)로 굳어졌다.

묵리 서쪽 바다에는 ‘섬생이’와 ‘수영여’라 부르는 섬이 있다.

④ 예초리(禮草里)

예초리는 하추자도(下楸子島)의 동북쪽 해안 일대에 있는 마을이다. 유인도인 추포도(秋浦島: 추가리)와 12개의 무인도를 거느리고 있다.

예초리는 17세기 후반에 함안 조씨(咸安 趙氏)가, 18세기 초반에 동북 오씨(同福 吳氏)가 들어와 설촌하였다고 한다. 그 후 황씨(黃氏), 밀양 박씨(密陽 朴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전주 이씨(全州 李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예초리 ‘작은예추(작은예초)’ 일대의 유물산포지에서 탐라시대의 무문토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음을 알 수 있다.

1789년의 『호구총수』(전라도 영암)에 ‘礪草(여초)’로 표기되고 1872년의 『영암추자도지도』에 ‘禮草(예초)’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여초’ 또는 ‘예초’라 했음을 알 수 있다. 礪草(여초)와 禮草(예초)는 각각 ‘여초’ 또는 ‘예초’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여초·예초’ 일대에 형성된 마을을 禮草里(예초리)로 표기하였다. ‘여초·예초’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여(썰물 때에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에는 잠기는 바위)’를 이르는 방언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禮初里(예초리)로 잘못 쓰기도 했으므로, 『조선지리지자료(1909)』에 禮草(예초),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禮草里(예초리)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반부터 禮草里(예초리)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예초리 해안에 ‘예초, 예초나루, 작은예초[小—]’ 등의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초’는 고유어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자 표기 禮草(예초)는 ‘예’

와 ‘초’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예초리에 속한 유인도로 ‘추가리’가 있다. 이 섬은 예초리 포구 북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민간에서는 ‘추가리’라 하는데 요즘 지도에는 ‘楸浦島(추포도)’로 표기하고 있다. ‘추’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가리’는 섬 따위를 이르는 지명 후부요소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秋浦島(추포도)로 표기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지형도에는 楸浦島(추포도)로 표기하였다. 1960년 지명 조사 때 “이 마을은 가을에 풍경이 좋다 하여 秋浦島(추포도)라 불리운다.”고 하여 秋浦島(추포도)로 표기하도록 했는데 楸浦島(추포도)로 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민간에서 ‘추가리’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은 억지에 불과하다.

2006년 8월 현재 본동과 추포도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예초리 북쪽 바다에는 ‘돌섬(큰돌섬과 작은돌섬), 쇠머리섬, 염섬, 가막녀(까막녀), 상섬, 쇠코(쇠코섬), 모녀, 구멍섬, 오등녀, 사수섬, 등대섬(등대여)’ 등 10개의 무인도가 있다.

⑤ 신양1리(新陽一里)

신양1리는 하추자도(下楸子島)의 중앙과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초리 남쪽에 있다.

신양1리는 17세기 후반에 해남 윤씨(海南 尹氏)가, 18세기 초반에 전주 이씨(全州 李氏)와 동북 오씨(同福 吳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하였다고 한다. 그 후 강릉 유씨(江陵 劉氏), 창원 황씨(昌原 黃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밀양 박씨(密陽 朴氏), 진주 강씨(晋州 姜氏), 청주 김씨(淸州 金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신양1리는 일찍부터 ‘어리구미·어리그미·얼그미·어룻구미’ 등으로 불렸다. 1872년 『영암추자도지도』에 ‘於伊今(어이금)’으로 표기되었는데 ‘어리금’ 또는 ‘어리그미’ 정도의 음성형을 반영한 차차 표기이다. ‘어리’ 또는 ‘얼’의 뜻은 확실하지 않고 ‘구미’는 ‘물’과 관련된 지명이라 한다.

한편 『호구총수(1789)』(전라도 영암)에서 ‘新基(신기)’로 표기된 마을이 있는데 ‘새터’ 정도의 음성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양1리 ‘새테샘·

새텃샘' 일대에 형성되었던 마을이 아닌가 한다. 『조선지지자료(1909)』에 '新上里(신상리) 新基浦(신기포)'로 표기했는데, '新基浦(신기포)'는 '새텃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지금 신양1리 포구 일대를 이른다. '새테'는 '새터'의 변음으로, 새로 닦은 터라는 데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新上里(신상리)는 조선 후기에 新基(신기: 새테·새터)라 하고, 포구는 新基浦(신기포: 새텃개·새텃개)라 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新上里(신상리)와 新下里(신하리)로 구분되었다가 일제강점기부터 新下里(신하리)와 新上里(신상리), 그리고 長作只(장작지: 지금의 신양2리) 등을 병합하여 新陽里(신양리)라 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新上里(신상리)는 '웃동리'(웃동네)라 하고 新下里(신하리)는 '아랫동리'(아랫동네)라 했다. 그러다가 1988년부터 新上里(신상리)와 新下里(신하리)를 합하여 신양1리(新陽一里)라 하고 '진작지'와 '석지머리' 일대를 신양2리라 하였다.

2006년 8월 현재 신양1리는 新下里(신하리)와 新上里(신상리)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신양1리에는 '큰보름섬'과 '작은보름섬'이라는 무인도가 있다.

⑥ 신양2리(新陽二里)

신양2리는 16세기 말에 창원 황씨(昌原 黃氏)가 들어와서 설촌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세기 초반에 진주 하씨(晋州 河氏)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1789년의 『호구총수』(전라도 영암)에서 '長作之(장작지)'로 표기되고 1872년의 『영암추자도지도』에 '長作只(장작지)'로 표기되었는데 모두 '진작지[진작찌]·진작제[진작찌]'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이 마을 포구에 길게 '작지(자갈)'가 널려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도 長作只(장작지) 또는 長作里(장작리)로 쓰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 신양1리의 新上里(신상리)와 新下里(신하리) 신양2리의 長作只(장작지) 등을 병합하여 新陽里(신양리)라 하였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長作只(장작지: 진작지) 아래쪽에 石頭里

(석두리: 석지머리)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석지머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진작지’는 ‘진작계[진작계]’라 하고 ‘석두리’는 ‘석죽머리·석지머리’라 했다. 1988년부터 신상리와 신하리 일대를 신양1리라 하고 ‘진작지’와 ‘석지머리’ 일대를 신양2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양2리의 중심마을인 ‘진작지’의 ‘진’은 ‘긴[長]의 구개음화한 것이고 ‘작지’는 ‘자갈’을 뜻하는 방언이다. 곧 해변에 ‘자갈’이 길게 뻗어 있다는 데서 ‘진작지’라 하였고 이를 불완전한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이 장작지(長作只)이다. ‘작지’의 한자차용표기로 작지(作只)가 쓰인 것이다. 이것은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는 상관없이 쓰인 것이다. 이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이름을 장작리(長作里)라 하였다. 마을이름 표기 장작리(長作里)는 只(지)가 생략 표기된 것이다.

‘진작지’ 아래쪽에는 ‘석지머리·석주머리’ 또는 ‘석두머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일대에 형성된 마을을 石頭里(석두리: 석지머리의 한자차용표기)라고 했었다. 석두리(石頭里)라 표기한 것으로 보아 ‘석두머리’의 구개음화가 ‘석주머리·석지머리’로 보인다.

신양2리 바다에는 ‘푸렁이섬, 미역섬, 밧미역섬, 수덕·수덕이’ 등의 섬이 있다.

2006년 8월 현재 신양2리의 자연마을은 ‘장작리’ 1개로 되어 있다. ‘長作里(장작리)’는 ‘진작지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인 長作只里(장작지리)의 불완전한 표기이다. 현대지도에도 ‘진작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장작리’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5. 추자면의 섬[島]·여[嶼] 이름

① **쥬즈섬>주즈섬>주즈섬**[楸子島·舟子島]

‘쥬즈섬>주즈섬>주즈섬’은 추자면의 본 섬을 이르는데, 한자로 楸子島

(추자도) 또는 舟子島(주자도)로 표기했다. 2개의 큰 섬으로 나뉘는데, 위쪽에 있는 섬이라는 上楸子島(상추자도)·楸子上島(추자상도) 또는 下楸子島(하추자도)·楸子下島(추자하도)로 구분하였다.

『세종실록』(권61, 15년 윤8월 정축)에는 舟子島(주자도)로 표기되고,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해진군)과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에도 舟子島(주자도)로 표기되었다. 이 舟子島(주자도)는 楸子島(추자도)의 이표기이다. 이로 볼 때 楸子島(추자도)와 舟子島(주자도)는 본디 ‘쥬즈섬>주즈섬>주즈섬’ 정도의 음성형을 반영한 표기로 보인다. 곧 楸子(추자)와 舟子(주자)는 서로 대응하는 표기로, ‘쥬즈>주즈’ 정도의 음성형을 반영한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다음의 두 내용을 비교하면 楸子島(추자도)와 舟子島(주자도)가 동일한 섬을 일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舟子를 왕래하는 곳은 세 곳이다……. 海珍에서 떠나면 三寸浦를 따라 巨要梁·三內島를 지나고, 康津에서 떠나면 軍營浦를 따라 高子黃伊露瑟島·三內島를 지나서 모두 3주야 걸려 舟子島에 이른다.(舟子往來處有三……發海珍則從三寸浦, 歷巨要梁·三內島 發康津則從軍營浦 歷高子黃伊露瑟島·三內島, 皆三晝夜, 至舟子島)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

楸子島……지지에 이르는 바는 海南과 康津 등지에서 배를 띄우기 위해 좋은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3일 낮밤이면 이 섬에 다다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楸子島……地誌所云海南·康津等處候風者 皆於三晝夜 到此島者 未可晚)

<김상헌 『남사략』 권3>

다음은 ‘주즈섬’과 관련한 주변 상황을 설명한 글로, 楸子島(추자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楸子島는 제주 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둘레는 30리이다. 무릇 제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羅州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면 務安 大堀浦, 靈巖 瓦島, 海南 於蘭梁을 거쳐 이 섬에 다다르게 된다. 海南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면 三寸浦를 지나고 鰲梁과 三內島를 거친다. 康津을 출발하면 軍營浦를 거치고 高子黃露島, 三內島를 거치는데, 이들 모두에서 출발하여 3일 낮밤이면 이 섬에 도착할 수 있다. 이곳을 거쳐서 麋鼠島와 大小化奪島를 지나면 涯月浦 및 朝天浦에 정박한다. 만약 바람이 이로우면 하루 안에 바로 바다를 건널 수 있다. ○ 고려 원종 11년에 三別抄가 玆島에서부터 耽羅 등에 들어 왔다. 안팎의 성의 험한 지세를 믿고 더욱 창궐하니 金方慶은 몽고의 忻都次와 함께 楸子島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한밤중에 바람이 급하게 불자 지시할 바를 몰랐다. 새벽녘에 이미 耽羅 가까이 도착하였다. 바람과 파도가 일고 웅숭음쳐서 나가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근거지를 잃어버리자, 방경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社稷의 安危가 단 한 번에 달려있는데, 오늘의 일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니,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멈추고 잠잠해져서, 드디어 나아가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耽羅 사람들은 그 공을 생각하여 候風島라고 한다. 이곳에 水站의 옛터가 있고, 또한 무덤이 많다. 최영이, 옛날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고려 충정왕 2년 경인년에 왜구가 번갈아 침노하여 朝貢浦가로 옮겨 살게 했다.(楸子島[在州北海中 周三十里 凡入濟州者 發羅州則歷務安大堀浦靈巖瓦島 海南於蘭梁 至此島 發海南則從三寸浦 歷鰲梁三內島 發康津則從軍營浦 歷高子黃露島 三內島 皆三晝夜至此 島由此過麋鼠島及大小化奪島 泊于涯月浦及朝天浦 風利則一日內直過海○高麗元宗十一年 三別抄自玆島入耽羅等 內外城恃險益猖獗 金方慶與蒙古忻都 次楸子島候風 夜半風急 不知所指 黎明已近耽羅 風濤洶湧 進退失據 方慶仰天太息曰 社稷安危 在此一舉 今日之事 不在我乎 俄而風浪止息 遂進攻大破之 耽羅之人 思其攻 因名候風島 兩峯屹立 樹木茂翳 峯皆有泉 中可藏船 凡涉海者 皆候風於此 有水站舊址 又多墳塋 舊有人居 高麗忠定王二年 庚寅倭賊迭侵 移居朝貢浦邊)

<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산천>

내가 보건대, 楸子島는 海南에 이어진 남쪽, 濟州에 이어진 북쪽에 있다. 身島와 別島가 있다. 섬의 지세는 길게 뻗어서 東餘鼠島를 향하여 들

아 안은 것이 마치 입을 벌린 모양과 같다. 身島와 別島 사이 뱃길은 끊어졌다. 斜鼠島에서부터 동풍이 순해져서 들어오면 뱃길이 매우 넓어서 바야흐로 큰 배 수백 척도 가능하다. 愁德島에서부터 서풍이 순하게 들어오면 겨우 중형배 두세 척을 웅납하는 것은 외연대포구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身島의 둘레는 수십 리이다. 이 섬 북쪽은 陸地海라고 하는데, 물빛이 혼탁하고 물결이 높지 않다. 이 섬 남쪽은 濟州海라고 하는데 물빛이 매우 푸르고 바람이 없어도 물결이 높다. 火脫島 일대는 물의 형세가 매우 험하다……. 소위 堂浦는 別島 안에 있는데, 섬의 지세가 돌아 안은 것이 참으로 바람을 피하여 배를 감출 수 있는 곳이다. 섬 어귀에 하나의 돌섬이 험하게 서있는데, 물결 표면에서 겨우 두서너 자밖에 나오지 않았다. 뱃사공이 만약 이곳을 알지 못하면 뱃길을 가는 배가 운행이 쉽지 않아 많이 뒤집힌다.(余見楸子島在海南之迤南濟州之迤北. 有身島別島. 島勢連亘回抱向東餘鼠 如張口之狀. 身島別島之間木路中斷. 自斜鼠順東風而入則船路極廣可方大艘數百 自愁德島順西風而入則僅容中船二三隻 外烟臺浦口甚隘故也. 身島周數十里 別島十餘里 自島以北謂陸地海 水色混濁波浪不高. 自島以南謂之濟州海 水色深碧無風浪高. 火脫一帶水勢尤險 ……所謂堂浦在別島內 島勢回抱真避風藏船之處. 島口有石嶼峭起 未出波面纔數尺 篙工若未諳此處 海路運船翻覆 多致傾覆)

<김상헌 『남사록』 권3>

② 몸섬>몸섬[身島]

‘몸섬>몸섬’은 추자도의 하추자도를 이른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과 김상헌 『남사록』(권3) 등에서 身島(신도)로 표기되었다. 身島(신도)는 ‘몸섬>몸섬’의 한자차용표기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는 “身島는 곧 楸子島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身島[卽楸子島主峰])”라고 하고, 김상헌 『남사록』(권3)에는 “身島의 둘레는 수십 리이다……소위 堂浦는 別島 안에 있다.(身島周數十里……所謂堂浦在別島內)”고 한 내용으로 보아, 身島는 지금의 下楸子島(하추자도)를 이른다.

이로써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추자도 지도에 下楸子島(하추자도)에 堂浦(당포)를 표기한 것은 오류이다. 결국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堂浦

(당포)가 下楸子島(하추자도)에 있었다는 설명도 오류일 수밖에 없다.

『조선강역총도』의 「탐라전도」에도 楸子島(추자도) 지도에서, ‘身島(신도)’에 ‘主峯(주봉), 堂浦(당포), 一云候風島(일운후풍도)’라 한 것도 오류이다.

③ 별섬>별섬[別島]

‘별섬>별섬[別島]’은 추자도의 상추자도를 이른다. 김상헌의 『남사록(1601-02)』(권3)에서 別島(별도)를 확인할 수 있다. 別島(별도) 안에는 堂浦(당포)가 있다고 하고, 섬의 형세가 돌아 안아서 참으로 바람을 피하여 배를 감출 수 있는 곳이라 하였다. 또한 포구에 石巖(석서: 돌섬-지금 ‘술여’를 이른다.) 堂浦(당포)는 지금 대서리에 있는 楸子港(추자항)을 지칭하고, ‘술여’는 추자항 어귀에 있는 여홀을 지칭하므로, 別島(별도)는 지금 상추자도를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추자도를 身島(신도: 몸섬)라 했으므로 別島(별도)는 ‘별섬>별섬’의 한자차용표기로 볼 수 있다.

④ 빗게니섬>빗게니섬[橫干島]

횡간도(橫干島)는 민간에서 ‘빗겐이, 비겐이’ 또는 ‘빗겐이’ 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빗게니섬[비게니섬]’의 한자차용표기라 할 수 있다. 18세기 초반 「탐라지도(1709)」와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非叱巨里(비질거리)’로 표기되고 1872년 『영암추자도지도』에 ‘橫干島(횡간도)’로 표기되었다. 非叱巨里(비질거리)는 ‘빗거리’ 또는 ‘빗게니’의 한자차용표기이다. 非叱(비질)은 ‘빗’의 음가자 표기, 巨(거)는 ‘거’ 또는 ‘게’ ‘겐’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 里(리)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橫(횡)은 ‘빗기-’의 혼독자 표기이고, 干은 ‘간’ 또는 유사음 ‘겐’의 음가자 표기이다. 셋째 음절 ‘이’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고 島(도)는 ‘섬>섬’의 혼독자 표기이다.

횡간도의 한자 표기는 『대동여지도』 등에서는 橫看島(횡간도)로 표기되고 『영암추자도지도』 등에는 橫干島(횡간도)로 표기되었다. 오늘날은 횡간도(橫干島)로 표기하여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 딸린 횡간도(橫看島)와 구분하고 있다.

⑤ 푸룽이섬>푸랭이섬

‘푸룽이섬>푸랭이섬’은 하추자도 ‘석지머리’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민간에서는 ‘푸래니’ 또는 ‘푸랭이·푸랭이’로 부른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과 이원진 『탐라지(1653)』(제주목, 산천) 등에서 淸路島(청로도)로 표기되고,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靑島(청도)로 표기되었다. 淸路島(청로도)는 ‘푸룽이섬>푸룽이섬’ 정도의 한자차용표기이고, ‘푸룽이’가 민간에서 ‘푸랭이·푸랭이’로 소리가 변하여 오늘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푸랭이섬’을 반영한 또 다른 차차표기가 靑島(청도)이다. 2005년 이전판 지도에는 靑島(청도)로 표기되었는데, 2005년판 이후 지도에는 ‘푸랭이’로 표기되고 있다.

이 섬을 遊女島(유녀도) 또는 淫女島(음녀도)라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遊女島(유녀도)로 표기되고, 김상헌 『남사록』(권4)에는 淫女島(음녀도)로 표기되어 있다. 淫女島(음녀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草蘭島(풀난섬: 愁德島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리가 겨우 56리이다.) 서남쪽에 하나의 돌 섬이 툇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을 淫女島라 했다고 한다. 이 이유를 물었더니, ‘濟州사람은 여자가 남자의 수보다 굵이 많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의식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매년 8-9월 사이에 북쪽 지방의 장사치들이 물건을 흥정하고 파는 일로 제주에 들어온다. 濟州의 遊女들이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오염한 모습으로 포구에 모여들어 바라본다. 만약 청명한 날이면 이 섬(여)이 돛을 펴서 단 큰 배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선으로 잘못 보고 서로 돌아보면서 기뻐한다. 호사자가 그래서 섬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 또 濟州에는 관속이 매우 적어 두 관아에서 제공하는 사람 외에는 무척 많은 군관에게 주방을 나누어 식사를 제공할 수도 없다. 성안에 남편 없는 자를 적에 올려 淫女라고 하며, 군관의 房婢로 정해준다. 그 일은 천하고 괴로워 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알리고 끌어서 음적이 날로 많아졌다. 관원이 된 사람은 가르치고 이끌어 그 더러운 풍속을 고치

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따라서 즐기고 사환으로 만들 작정이라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草蘭島之西南 又有一石嶼突兀 名爲淫女島 問其由濟之人 女倍男數 無夫者甚多 衣食極艱 每於八九月間 北地商賈輩 以興販事入歸 州之遊女等 梳洗冶容 於浦口簇望 若清明之日 則遠見此嶼 如張帆巨艦 故女輩錯認爲商船 相顧而喜 好事者因以名島 且濟州官屬甚少 兩官衙供之外 許多軍官 不能分廚支饋 案籍城中無定夫者 稱謂淫女 定給軍官之房婢 其役賤且苦 不堪獨當 傳相告引 淫籍日添 爲官員者非但無意教率 革其汚俗 又從而樂 聞以爲使喚之計 誠可駭也)

<김상헌 『남사록』(권4)>

⑥ 디길섬>지길섬>지꾸섬

‘디길섬>지길섬’은 知道島(지도도)로 표기되었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과 이원진 『탐라지(1653)』(제주목, 산천) 등에 知道島(지도도)로 표기되고, 추자도 남쪽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섬은 추자도 남쪽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知道島(지도도)가 ‘디길섬>지길섬’의 차자표기가 확실하다면, 지금 상추자도 서북쪽에 있는 直龜(직귀)를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知(지)의 중세음은 ‘디’이고, 直(직)의 중세음은 ‘딕’인데, 둘째 음절 첫소리가 ‘ㄱ’ 또는 ‘ㄱ’임을 고려하면 대응하는 것이다. 또 道(도)의 훈이 ‘길’이고 龜(귀)도 음이 ‘귀’임을 고려하면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直龜(직귀)는 直龜島(직귀도)라고도 하는데, 민간에서 ‘지꾸’ 또는 ‘지꾸’라고 한다. 直龜(직구)는 ‘지꾸섬’의 ‘지꾸’ 또는 ‘지꾸섬’의 ‘지꾸’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⑦ 풀난섬>풀난섬

‘풀난섬>풀난섬’은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과 김상헌의 『남사록(1601-02)』 등에서 草蘭島(초란도)로 표기되고, 이원진 『탐라지(1653)』(제주목, 산천)에 草生島(초생도)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1701년의 『탐라순력도』 「하라장축」에 草亂(초란)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生(생)과 蘭(난), 亂(난)은 서로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生(생)은 ‘난’

의 혼독자 표기, 蘭(난)과 亂(난)은 ‘난’의 음가자 표기이다. 草(초)는 ‘새’ 또는 ‘풀’의 음독자 표기로 보인다. 곧 草生島(초생도)와 草蘭島(초란도), 草亂(초란)은 ‘풀난섬>풀난섬’의 차자표기로 보인다.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다.

옛 기록에 추자도 남쪽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 ‘뱃미역섬’으로 부르고 外霍島(외곽도)로 표기되는 섬을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2004년 판 이전 지도에는 주로 外霍島(외곽도)로 표기되었는데, 2005년판 이후 지도에는 ‘뱃미역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⑧ 수대기섬>수대기섬

‘수대기섬>수대기섬’은 ‘푸랭이’ 남동쪽에 있는 섬을 이른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과 김상헌의 『남사록(1601-02)』 등에서 愁德島(수덕도)로 표기되고, 이원진 『탐라지(1663)』(제주목, 산천)에 雄原島(웅원도)로 표기되었다.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水德島(수덕도)로 표기되었다.

愁德島(수덕도)와 雄原島(웅원도), 水德島(수덕도)는 서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愁(수)와 水(수)는 ‘수’의 음가자 표기이고, 雄(웅)은 ‘수’의 혼가자 표기이다. 德(덕)은 ‘덕’의 음가자 표기이고, 原(원)은 ‘두던(原 두던 원 寬平曰原<훈몽-초, 상:2>)>두덕(原 地高平 두덕<신자전>)’의 유사훈 ‘덕’의 혼독자 표기이다.

일제강점기 이후로 水德島(수덕도)로 표기하다가, 2005년 이후 지도에는 ‘수덕여’로 표기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수덕이’로 부른다. ‘수덕’은 표준어 ‘너덜경’과 비슷한 뜻을 가진 방언이다. 곧 돌이 많은 비탈이나 언덕 또는 돌무더기와 잡나무가 어우러진 곳을 이른다.

한편 이 섬은 ‘사즈섬>사자섬’이라 하여 獅子島(사자도)라고도 한다.

⑨ 사여서섬 · 동여서섬 · 여서섬

‘사여서섬 · 동여서섬 · 여서섬’은 사수도 동쪽에 있는 섬으로, 지금 완도군 청산면에 속해 있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斜餘鼠島 · 斜鼠島

[俱在楸子島東 兩島俱有泉 其南漁船盆集]”라 하고, 이원진 『탐라지(1653)』(제주목, 산천)에 “麴鼠島·東餘鼠島[俱在楸子島東 兩島俱有泉 其南漁船盆集]”라고 한 것으로 보아, 斜鼠島(사서도)와 麴鼠島(사서도)가 같은 섬이고, 斜餘鼠島(사여서도)와 東餘鼠島(동여서도)가 같은 섬임을 알 수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餘鼠島(여서도)로,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麗瑞島(여서도)로 표기되었다.

斜餘鼠島(사여서도)로 표기되던 섬이 東餘鼠島(동여서도)로 표기되고, 다시 餘鼠島(여서도)로 표기되다가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麗瑞島(여서도)로 표기되었다. 餘鼠島(여서도)는 ‘여서섬>여서섬’ 정도의 음성형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斜餘鼠島(사여서도)의 斜(사)는 ‘사서섬’의 차자표기의 斜鼠島(사서도)의 첫 글자로 보인다. 곧 ‘사서섬’ 옆에 있는 ‘여서섬’의 표기로 보인다. 東餘鼠島(동여서도)는 동쪽에 있는 ‘여서섬’이라는 데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709년의 『탐라지도병서』를 보면 “東餘鼠 自魚登浦北距一百五十餘里”라 하여, 東餘鼠島는 어등개[魚登浦: 지금 행원리]에서 북쪽으로 150여 리의 거리에 있는 섬이라 했다. 이 섬이 지금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있는 ‘여서도(麗瑞島)’로 보인다.

⑩ 사서섬>사수섬>사수도(泗水島)

‘사서섬>사수섬>사수도(泗水島)’는 하추자도 예초리 동쪽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최근에 제주도와 완도군청 사이에 관할권 분쟁이 인 곳이다.

이 섬은 민간의 고유 음성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일찍부터 斜鼠島·麴鼠島·射鼠島(사서도) 또는 斜藪島·斜數島·蛇水島(사수도) 등으로 표기되다가 일제강점기부터 泗水島(사수도)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록에 따라서 (사수도)로 표기되기도 했다.

『고려사』(권57, 지11, 지리2, 탐라현)과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 『중종실록』(권65, 24년 4월 갑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 김상헌 『남사록』, 이증의 『남사일록』 등에서 斜鼠島(사서도)로, 『순조실록』(권3, 1년 8월 을사)에 射鼠島(사서도)로,

『선조실록』(권127, 33년 7월 경술)과 『선조실록』(권137, 34년 5월 을사) 등에 斜數島(사수도)로, 임제의 「남명소승」과 『선조실록』(권137, 34년 5월 을사) 등에 斜藪島(사수도)로,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에 麩鼠島(사서도)로 표기되었다.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에는 “麩鼠島[一作斜鼠……]”, 『증보문헌비고』에는 “麩鼠島[一云斜鼠島……]”로 표기하였다. 1872년 「청산도지도」에는 蛇水島(사수도)로, 1919년 7월 10일 신고된 민적부에는 斜藪島(사수도)로 표기되었다.

斜鼠島(사서도)와 麩鼠島(사서도), 射鼠島(사서도)는 ‘사서섬>사서섬’의 한자차용표기이고, 이것이 ‘사수섬>사수섬’으로도 불려 斜藪島·斜數島·蛇水島·泗水島(사수도)로도 표기되다가 泗水島(사수도)로 정착한 것이다.

예초리에 속한 12개의 무인도 중 가장 큰 섬으로, 예초리 ‘모녀·모여’ 동쪽 바다에 있는 섬이다. 사람에 따라 ‘장수도(獐水島)’라고도 한다. 예초리 산121번지로 되어 있다. 이 섬의 면적은 69,223㎡이다. 이 섬에는 흑비둘기와 습새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수도해조류(흑비둘기·습새)번식지(泗水島海鳥類繁殖地)’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되었다. 해안선의 절벽을 제외한 전 표면에 동백나무와 왕후박나무를 비롯하여 방기·생달나무·사스레피나무·보리밥나무 등 9종의 상록활엽수림이 우거져 있다. 후박나무 가지에는 흑비둘기가 둥지를 틀며, 나무 밑 지하에는 습새가 터널을 파서 번식한다. 흑비둘기 등지는 10개 미만이나, 습새는 수십 쌍이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희귀조인 섬개개비도 번식하고 있다. 최근에 전라남도가 영토 분쟁을 일으킨 곳이기도 한데,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일찍부터 제주도 추자도에 부속된 섬임을 알 수 있다. 1979년에 내무부의 도서등록지침에 따라 완도군이 사서도를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 임야 214,328㎡-항공 촬영에 의한 면적 계산)해 버리고, 최근에 완도군 소안면에서 이 일대의 해산물 채취권을 주장하면서 사수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1959년의 추자면 예비지명조사표에도 추자도 소유로 되어 있고, 1972년 간행의 내무부 『도서등록편람』에도 추자면 예초리 소속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85년 내무부 『도서지(島嶼誌)』에도 사서도가 추

자면 소속의 섬으로 등록되어 있다. 더욱이 2002년에 전라남도에서 만든 『전남의 섬[島]』에는 ‘사서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① 화탈섬>과탈섬·관탈섬>큰관탈섬, 작은관탈섬

‘화탈섬>과탈섬·관탈섬’은 하추자도 목리 바다에 있는 섬 중 하나이다. 『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에 ‘大·小火脫島(대소 화탈도)’, 『성종실록』(권292, 25년 7월 계축)에 ‘濟州 火脫島(제주 화탈도)’로,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에 ‘大·小火脫島(대소 화탈도), 大火脫島(대화탈도), 小火脫島(소화탈도)’로 표기했다.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에는 ‘大·小化奪島(대소화탈도), 大化奪島(대화탈도), 小化奪島(소화탈도)’로 표기했다. 이상을 보면 火脫島(화탈도)와 化奪島(화탈도), 大火脫島(대화탈도)와 大化奪島(대화탈도), 小火脫島(소화탈도)와 小化奪島(소화탈도)가 대응함을 알 수 있다.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제주목, 산천)를 보면 ‘大化奪島[一作火脫]’이라 하여 化奪(화탈)을 火脫(화탈)로도 쓴다고 했으므로, 火脫(화탈)과 化奪(화탈)은 ‘화탈’의 음가자 결합 표기임을 알 수 있다. 島(도)는 ‘섬>섬’의 훈독자 표기이므로, 火脫島·化奪島(화탈도)는 ‘화탈섬>화탈섬’의 한자차용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大火脫島·大化奪島(대화탈도)는 ‘큰화탈섬>큰화탈섬’의 차자표기이고, 小火脫島·小化奪島(소화탈도)는 ‘작은화탈섬>작은화탈섬’ 또는 ‘적은화탈섬>적은화탈섬’의 차자표기이다.

결국 ‘화탈섬>화탈섬’으로 부르던 고유어를 차자 표기로 쓴 것이 火脫島·化奪島(화탈도)인데, 일제강점기부터는 華島(화도)로 표기하여 大華島(대화도)와 小華島(소화도)로 썼다. 華島(화도)도 ‘화탈섬’의 차자표기 중 하나로, 둘째 음절 ‘탈’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근래에 ‘화탈’은 ‘과탈’ 또는 ‘관탈’로 소리가 변하여 ‘큰과탈·큰관탈, 작은과탈·작은관탈·적은관탈’이라 한다. ‘과탈’로 소리가 변하자 ‘관탈’로 인식하고 이는 한자어 ‘冠脫(관탈)’의 변음이라는 설명까지 나오게 되었다.

1959년 『지명제정서류철』을 보면 한자로 大華島(대화도)와 小華島(소화도)로 쓰고 한글로 ‘큰과탈’과 ‘저근과탈’로 쓴 것을 보면 1950년대에는 ‘화

탈'이 '과탈'로 소리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과탈'을 '곽개[곽개]'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과탈'의 별칭으로 보인다. 이 일대에서 바라보는 파란 물결이 아름답다고 하여 추자10경 중 하나인 '곽개창파[孤島蒼波]'가 이를 이른다.

'화탈' 또는 '과탈', '곽개'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⑫ 따무내미

'따무내미'는 상추자도 대서리 북서쪽 가까이에 섬을 이른다. 이 섬은 일찍부터 '따무내미'로 부르고, 일제강점기 지도는 물론 오늘날의 1:5,000 지형도에 '多務來味(다무래미)'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따무내미, 따무래미, 다무내미, 다무래미, 다무나미' 등으로 부르는데, 1959년 추자도 『지명제정철』에도 '따무내미'로 표기했으므로, '따무내미'가 오랜 음성형이라 할 수 있다. 밀물에는 사람이 걸어서 들어갔다가 썰물에는 물이 차서 나오지 못하는 섬이다. 多務來味(다무래미)는 '따무내미'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⑬ 악생이섬

'악생이섬'은 상추자도 대서리 북쪽 바다에 있는 '수령섬' 너머에 있는 자그마한 섬을 이른다. 대서리에 속한 10개의 무인도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와 오늘날의 1:5,000 지형도, 1:25,000 지형도 등에 '樂生伊(악생이)'로 표기되었다. 한자 차용 표기 樂生伊(악생이)는 '악생이'의 차자표기이기 때문에 '낙생이'로 읽어서는 안 된다. '악생이여'라고도 하는데, '악생이섬'으로 인식하여 '樂生伊島(악생이도)' 또는 '樂生島(악생도)'로 쓰는 경우도 있다.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과 제39회 『제주통계연보』(제주도, 1999) 등에서는 '악생도'로 쓰고 있으나, '악생이' 또는 '악생이여'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오늘날의 지도에도 '악생이'로 표기되어 있다. 면적은 13,787㎡이고, 지번은 대서리 산215번지이다.

⑭ 수영여

‘수영여’는 하추자도 목리 포구 서쪽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목리에 속한 3개의 무인도 중 하나이다. 사실 섬이라기보다 ‘여(썰물 때 드러나고 밀물 때 잠기는 바위[灘])’라고 할 수 있기에 ‘수영녀, 수영여’라고 부른다. 4~5개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밀물 때는 큰 여만 드러나고, 그에 딸린 작은 여들은 대부분 물에 잠긴다. 일제강점기 5만분의 1 지도에 水營嶼(수영서: 수영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자음을 그대로 수용하여 ‘수영서’라고도 하나, ‘수영여’가 본래 이름이 된다. ‘여’를 ‘섬’으로 바꾸어 ‘수영섬’이라고도 하고, ‘수영섬’의 ‘섬’을 ‘도(島)’로 바꾸어 ‘수영도’라고도 한다. 1959년의 추자면 예비지명조사표에는 ‘水營嶼(수영서), 수영여’로 표기하고, 1985년 내무부 『도서지(島嶼誌)』에는 ‘水營島(수영도)’, 북제주군 『제24회 통계연보』(2004)의 ‘무인도’ 항목에는 ‘수영도’로 표기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5,000분의 1 지도와 25,000분의 1 지도 등에는 ‘수영여’라고 표기했다. 민간에서는 ‘쉬영여’라고도 한다. ‘수영’ 또는 ‘수영’은 ‘쉬다[息]’는 뜻을 가진 고유어의 활용형으로 보인다. ‘수영여’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면적은 815m²이다.

⑮ 공여·공녀

‘공여·공녀’는 상추자도 대서리 북쪽 ‘수령섬’ 너머 바다에 있는 여로, 대서리에 속한 10개의 무인도 중 하나이다. ‘악생이’ 북쪽 바다에 있는 자그마한 여를 이른다. ‘악생이’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다. 대부분은 바닷물에 잠기고, 조금 바다 위로 드러나 있는데, 이 여에서는 해초 따위가 전혀 나지 않으므로 ‘비어있는 여’라는 데서 ‘공녀·공여’라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空嶼(공서)’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공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오늘날의 5천 분의 1 지도와 2만5천 분의 1 지도에는 ‘공여’로 표기되어 있다.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에서는 ‘공여도’로 쓰고 있으나, 이는 그냥 ‘공여’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면적은 3,306m²이고, 지반은 대서리 산214번지이다.

⑩ 염섬 · 염여

‘염여’는 상추자도 영흥리 ‘이섬(예섬/이도)’ 서남쪽, ‘검둥여’ 서쪽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민간에서는 ‘영흥리’ 소재라고 하나, 북제주군 『제24회 통계연보』(2004)의 ‘무인도’ 항목에는 ‘예초리’에 속한 섬으로 ‘염도’를 표기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0 지형도와 1:25,000 지형도 등에는 ‘염섬’으로 표기하였으나, 일제강점기 5만분의 1 지도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 등에는 廉島(염도)와 ‘염도’로 표기되어 있다. 廉島(염도)는 ‘염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민간에서 분명히 ‘염섬’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염섬’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⑪ 예섬 · 이섬

‘이섬’은 ‘염섬’ 북동쪽, ‘추가리’ 남서쪽에 있는 섬을 이른다. ‘이섬’ 바로 동쪽에 ‘검둥여’가 있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禮島(예도)로, 1959년의 추자면 예비지명조사표에는 ‘禮島(예도), 이섬’으로, 1985년 내무부 『도서지(島嶼誌)』에는 ‘禮島(예도), 예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에는 ‘예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에서는 ‘이도’로 쓰고 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5,000분의 1 지도와 25,000분의 1 지도 등에는 ‘이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禮島(예도)는 ‘예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실제 민간에서도 ‘예섬’이라고 한다. 결국 ‘예섬’이 소리가 변하여 ‘이섬’이 되고, ‘이섬’은 다시 ‘섬’을 ‘도(島)’로 나타내어 ‘이도’라 하게 된 것이다. 그냥 ‘예섬’ 또는 ‘이섬’이라 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면적은 14,027 m²이다.

⑫ 오동여

‘오동여’는 하추자도 예초리 추가리(추포도) 북서쪽 바다에 있는 여를 이른다. 동쪽에 있는 큰 여를 ‘큰오동여’라 하고, 서쪽에 있는 작은 여를 ‘작은오동여’라고 한다. 1:5,000 지형도에는 두 개의 여와 이름(큰오동여,

작은오동여)이 표기되었는데, 1:25,000 지형도에는 이를 아우른 ‘오동여’만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5만분의 1 지도에는 梧桐嶼(오동서)로 표기했는데, 이는 ‘오동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에는 ‘오동서’로 표기되고,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에서는 ‘오동서(Odeung-seo)’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냥 ‘오동여’로 쓰면 될 것이다. 여 모양이 오동나무와 같다는 데서 붙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검붉은 빛이 난다는 데서 붙인 것으로도 보인다.

⑱ 두령이 · 두령여

‘두령이’는 ‘검은가리’(흑검도) 바로 동북쪽 바다에 있는 여를 이른다. ‘납덕이’ 바로 옆에 있다. 민간에서는 ‘두령이’ 또는 ‘두령여’라고 하는데, ‘두령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이 일대에서 ‘우럭’이 많이 난다고 해서 ‘우럭여’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斗嶺(두령)으로, 1969년의 추자면 예비지명조사표에는 斗嶺嶼(두령서)로, 1985년 내무부 『도서지(島嶼誌)』에는 ‘두령, 豆嶺嶼島(두령서도)’로, 북제주군 『제24회 통계연보』(2004)의 ‘무인도’ 항목에는 ‘두령서’로 표기되어 있다. 斗嶺嶼 · 斗嶺嶼(두령서)는 ‘두령이여 · 두령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그러나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 지형도와 1:25,000 지형도 등에는 ‘두령여’로 표기되어 있다. 면적은 1,314㎡이다. ‘두령여’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⑳ 납덕이 · 납덕이여

‘납덕이’는 ‘검은가리’ 북동쪽 바다에 있는 여를 이른다. ‘두령섬’ 바로 위쪽에 있는 여다. 자그마한 바위섬으로, 납작하게 누워있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납’은 ‘납작하다’의 ‘납’이고, ‘덕’은 너럭바위를 이르는 고유어다. ‘이’는 명사 형성 접사이다. ‘납덕이[납더기]’는 소리가 변하여 ‘납덱이[납데기]’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 때 5만 분의 1 지도에는 納德島(납덕도)로 표기되고, 1985년 내무부 『도서지(島嶼誌)』에는 ‘납덱, 納德嶼島(납덱서도)’로 표기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

도』에는 ‘납덕도’로,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에서는 ‘납덕서’로 표기되어 있다. ‘납덕이’는 섬이라기보다 여에 가까우므로 ‘납덕이여·납택이여’ 정도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면적은 1,087m²이다.

가린여·개린여

‘가린여·개린여’는 하추자도 예초리 북동쪽 바다에 있는 여를 이른다. 지금 영흥리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은가리(흑검도)’ 북동쪽 바다에 있는데, ‘납덕이여’와 ‘시릿녀[시린녀]’ 사이에 있다. 두 개의 여로 갈리어 있다는 데서 ‘가릿여[가린녀]’ 또는 ‘개릿여’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加仁嶼’(가인서: ‘가린여’의 한자 차용 표기)로 표기되어 있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에도 ‘가인서’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 지형도와 예는 북제주군 제 44회 『통계연보』(2004)의 무인도 이름에도 ‘개인여’(‘개린여’의 잘못)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 민간에서는 ‘가린여’ 또는 ‘개린여’로 부른다. ‘가린여’로 쓰는 것이 효과적일 듯하다.

검은가리

‘검은가리’는 상추자도 대서리 동북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대서리에 속한 10개의 무인도 중 하나를 이른다. 추가리(민간에서는 ‘추포도/楸浦島·秋浦島’로 알려지고 있다.) 동쪽에 있는 섬이다. ‘검은가리섬’인데, 민간에서는 그냥 ‘검은가리’라 한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 지형도와 1:25,000 지형도에는 ‘검은가리’로 표기되었는데,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黑劔島(흑검도)’로 표기되었다. 1:100,000 지도에도 ‘흑검도’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과 제39회 『제주통계연보』(제주도, 1999) 등에서는 ‘흑검도’로 까지 잘못 표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黑劔島(흑검도)는 ‘검은가리섬’을 한자 차용 표기로 나타낸 것 불과하다. 오늘날은 ‘黑鈴島(흑검도)’로도 표기되고 있다. 섬이 유난히 검게 보인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

다. '가리'는 바다에 있는 섬 따위에 붙는, 전라 방언이다. 면적은 145,884㎡이고, 지번은 대서리 산153-1번지이다.

보름섬(큰보름섬, 작은보름섬)

'보름섬'은 상추자도 대서리 신앙항 동북쪽 바다, '검은가리(흑검도)' 동북쪽 바다, '돌섬' 바로 동북쪽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 지형도와 1:25,000 지형도 등에 '보름섬'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 등에는 '望島(망도)' 또는 '망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望島(망도)는 '보름섬>보름섬>보름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보름섬'으로 표기된 것은 '보름섬'의 변음으로 보인다. 큰 섬과 작은 섬이 있는데, 큰 것을 '큰보름섬', 작은 것을 '작은보름섬'이라 부른다. '큰보름섬' 정상에는 무인등대가 서 있다. 보름달같이 생겼다는 데서 붙인 것인지, 바람(風)과 관련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주로 보름달과 같다는 데서 붙여졌다고도 하고 추자도의 동쪽에 있는 섬으로 물 또는 추자도 본섬을 바라보는 섬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지어 추자10경 중 하나인 '망도수향(望島守鄕)'이 만들어졌다. 복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에서 '망도'로 쓴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냥 '보름섬' 또는 '보름섬'이라 하면 될 것이다. 지번은 대서리 산154번지로 되어 있으나, 주로 예초리 사람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한다. 면적은 16,552㎡이다.

돌섬·덜섬(큰돌섬·큰덜섬, 작은돌섬·작은덜섬)

'돌섬'은 하추자도 예초리 북동쪽 바다에 있는 '상섬'과 '구명섬' 바로 동쪽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이른다. '큰 섬'과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것을 '큰돌섬', 작은 것을 '작은돌섬'이라 한다. '돌섬[-섬]'은 사람에 따라서 '덜섬[-섬]' 또는 '덜섬[덜섬]'으로 부르기도 한다. 모두 '독섬' 또는 '돌섬'의 변음이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1:100,000 지도와 1:25,000 지형도에는 '덜섬'으로만 표기되고, 1:5,000 지형도에는 '큰덜섬'과 '작은덜섬'으로 표

기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玆島(돌도)로 표기했는데, 이는 '돌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이 '돌섬'이 소리가 변하여 '덜섬'이 되고, '덜섬'은 다시 큰 섬인 '큰덜섬'과 작은 섬인 '작은덜섬'으로 불린 것이다. 돌로만 된 섬이라는 데서 '독섬' 또는 '돌섬'이라 붙인 것이다.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에서는 '돌도1, 돌도2'로 쓰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냥 통틀어 일절을 때는 '돌섬'이라 하고, 나누어서 일컬을 때는 각각을 '큰돌섬', '작은돌섬'이라 하면 될 것이다.

쇠머리·쇠머리섬

'쇠머리·쇠머리섬'은 하추자도 예초리 북서쪽 바다, '쇠코' 위쪽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쇠머리'를 닮았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1:5,000, 1:25,000 지형도 등에 '쇠머리'로 표기했으나, 1:100,000 지도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 등에는 '우두도(牛頭島)로 표기했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牛頭(우두)로 표기했는데, 이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에서 분명히 '쇠머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쇠머리' 또는 '쇠머리섬'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섬의 형태가 소의 머리와 같다는 데서 '쇠머리'라 불렀다고 한다. '쇠머리'는 우도10경 중 하나인 '우두일출(牛頭日出)'과 관련이 있다. 곧 '쇠머리'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쇠코

'쇠코'는 하추자도 예초리 '쇠머리섬' 아래쪽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쇠의 코'에 해당한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위쪽의 '쇠머리섬'과 관련된 것이다. 1:5,000, 1:25,000, 1:100,000 지도 등에 '쇠코'로 표기했으나,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牛鼻(우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와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에서는 '우비도'로 쓰고 있다. 민간에서 분명히 '쇠코'

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쇠코’ 또는 ‘쇠코섬’이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섬 정상에는 무인등대가 서 있다.

상섬

‘상섬’은 하추자도 예초리 포구 북동쪽에 있는 ‘구명섬’ 바로 서쪽에 있는 섬을 이른다. 1:5,000 지형도에는 ‘상섬’으로 표기했는데,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1989),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에는 ‘床島(상도)’ 또는 ‘상도’로 표기하였다. 床島(상도)는 ‘상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그냥 ‘상섬’이라 하기 때문에 그냥 ‘상섬’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모녀·모여

‘모녀·모여’는 하추자도 예초리 ‘신대’ 동남쪽 바다에 있는 여를 이른다. ‘쇠코’ 남동쪽 바다에 있다. 이 ‘모녀’ 정상에 무인등대가 서 있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方巖(방서)’로 표기된 이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와 북제주군 『제24회 통계연보』(2004)의 ‘무인도’ 항목에는 ‘방서’로 표기되어 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 1:25,000 지형도 등에 ‘모여’로 표기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주로 ‘모녀’라고 한다.

등대여

‘등대여’는 하추자도 예초리 포구 바로 북쪽에 있는 여로, 이 여에 등대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예초리의 12개 무인도 중 하나이다.

구명섬

‘구명섬’은 하추자도 예초리 ‘상섬’ 바로 동북쪽, ‘큰돌섬’ 바로 서북쪽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섬에 있는 큰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데서 ‘구명섬’이라고 붙여진 것이다. 민간에서도 ‘구명섬’이라 하고, 1:5,000,

1:25,000, 1:100,000 지도 등에도 ‘구명섬’으로 표기했는데,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穴島(혈도)로 표기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북제주군 『제44회 통계연보』(2004)의 ‘해안선 및 도서’의 ‘무인도’ 항목은 물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 등에도 ‘혈도’로 쓰고 있는데, 이는 ‘구명섬’을 한자 창용 표기로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걸린다. 그냥 우리말로 ‘구명섬’이라 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㉑ 가막녀[가망녀]

‘가막녀[가망녀]’는 하추자도 예초리 포구 가까이에 있는 ‘큰여’ 바로 북서쪽 바다에 있는 여를 이른다. 이 여에 무인등대가 들어서 있다는 데서 ‘등대여’라고 한다. 이 무인등대를 따로 일컬을 때는 ‘가막녀등대’ 또는 ‘가막녀등대’라고 한다. 예초리에 속한 12개 무인도 중 하나이다. 제44회 『통계연보』(북제주군)에는 ‘가망여(Gamahg-yeo)’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막녀’의 잘못이다. 민간에서는 ‘가막녀[가망녀]’ 또는 ‘까막녀[까망녀]’라 부른다. ‘가막’은 ‘감·검-[黑]’의 활용형으로, 물속에서 드러나는 여가 유난히 가깝게 보인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㉒ 섬생이

‘섬생이’는 하추자도 목리 포구 바로 서남쪽 바다에 있는 섬을 이른다. 민간에서는 주로 ‘섬생이’라 부르는데,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蟾島(섬도: 섬생이섬의 한자창용표기)로 표기된 이후로, ‘섬도’라고도 하고 있다. 한자 표기를 중시하여 모양이 두꺼비같이 생겼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한자 표기에 견인된 민간어원설로 믿을 수 없어 보인다. ‘섬생이’는 지적도 상에 신양리(신87번지 임야) 관할로 되어 있으나, 이 일대의 해녀작업은 목리에서 담당하고 있다.

㉓ 시리어·시릿여(큰시리어·큰시릿여, 작은시리어·작은시릿여)

‘시리어·시릿여’는 ‘검은가리’(흑검도) 동북쪽 바다에 있는 여를 이른다.

‘개린녀’ 북쪽, ‘미역섬’ 동쪽에 있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甌嶼(중서)로, 1959년의 추자면 예비지명조사표에는 ‘甌嶼(중서), 시리섬’으로, 1985년 내무부 『도서지(島嶼誌)』에는 ‘시루여, 시루여島’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에는 ‘중서’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5,000, 1:25,000 지형도 등에는 ‘시루여’로 표기되어 있다. 甌嶼(중서)는 ‘시리여·시루여’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시리’는 ‘시루’의 방언으로, ‘시리’와 같이 생긴 여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여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큰 것은 ‘큰시리여’, 작은 것은 ‘작은시리여’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시릿녀[시린녀]’(큰시릿녀, 작은시릿녀)라고도 한다. ‘시리여’의 면적은 2,077km²이다.

㉔ 미역섬(큰미역섬, 작은미역섬)

‘미역섬’은 ‘빗갱이섬·빗갠이섬[橫干島] 바로 동쪽에 있는 섬을 이른다. 보통 ‘미역섬’이라 하는데,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큰 섬을 ‘큰미역섬’, 작은 것을 ‘작은미역섬’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蠶島(곽도)로, 1959년의 추자면 예비지명조사표에는 ‘蠶島(곽도), 미역섬’으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한국남안제분도』에는 ‘곽도’로 표기했다. 특이하게 북제주군 『제24회 통계연보』(2004)의 ‘무인도’ 항목에는 ‘미역섬(-嶼)’로 등재되어 있다.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 1:25,000 지형도 등에는 ‘미역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미역’ 따위의 해초가 많이 나는 섬이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1985년 내무부 『도서지(島嶼誌)』에는 ‘환도’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蠶島(곽도)’를 잘못 읽고 표기한 것이다. 그냥 ‘미역섬’이라 하면 될 것이다. 면적은 29,626m²이다.

㉕ 고래여

‘고래여’는 하추자도 묵리 ‘갈미여’ 옆에 있는 여를 이른다. 고래등과 같이 물위에 살짝 드러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㉖ 갈미여

‘갈미여’는 하추자도 묵리 ‘고래여’ 옆에 있는 여 또는 ‘가린여’와 상섬’

사이에 있는 여를 이른다. ‘갈미’는 갈뒸과의 극피 동물로, 해삼 비슷하며 얕은 바다에서 사는데, 날로 또는 말려서 먹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갈매기’를 뜻하기도 한다. ‘갈모’의 변음으로 쓰이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갈모’처럼 생겼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6. 기타 이름

① 당캐[堂浦] > 堂口浦(당구포) > 추자항(楸子港)

‘당캐’는 상추자도 대서리 추자항에 있었던 옛 포구를 이른다. 『남사록』(권4)에 ‘섬의 북쪽 언덕에 토당이 있다. 왕래하는 뱃사람들이 바람을 비는 곳이다, 포구 이름을 당캐라 한 것도 이 때문이다.(島之北岸有土堂 往來船人祈神禱風之處 浦名爲堂 以此也)’고 하였다.

김상헌의 『남사록(1601-1602)』(권4)를 보면 추자도(楸子島)에 ‘身島(신도: 몸섬)’와 ‘別島(별도: 별섬)’가 있다고 했다. ‘신도’는 지금의 상추자도 ‘별도’는 지금의 하추자도를 이룬다고 했는데(『추자도』 1999:81) “身島는 둘레가 수십 리이고 別島는 십여 리이다.(身島周數十里 別島十餘里)<『남사록(1601-1602)』(권4)>”라고 한 기록을 볼 때 ‘身島’의 둘레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身島(신도)가 ‘몸섬’의 한자차용표기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책에 이어지는 기록에 “소위 ‘당캐’는 別島에 있다.(所謂堂浦在別島)<『남사록(1601-1602)』(권4)>”는 기록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 ‘추자도’를 보면 ‘下楸子(하추자)’의 신양리 경에 堂浦(당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지금의 상추자도가 ‘身島’에 해당하고 ‘하추자도’가 ‘別島’에 해당하게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을 보면 “楸子島(추자도)는 제주 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水站(수참)의 옛 터가 있다.”라고 하고, ‘身島(신도)’를 항목을 달리하여 설정하고 ‘추자도의 主峰(주봉)’이라고 했다. 다른 고지도인 『조선강역총도』의 「탐라전도」 등을 보면 楸子島(추자도)를 ‘身島 主峯 堂浦(신도 주봉 당포)’ 또는 ‘一云候風島(일운후풍도)’라 했고 1926년의 『전라남도지』(권7 제주목 산천)에는 ‘楸子島(추자도)’가 따로 나오고 이

어서 “身島[即楸子島主峯]”라고 표기하고 뱃길을 표기한 것을 볼 때 ‘身島’가 하추자도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여기에 나오는 堂浦(당캐)는 지금의 대서리에 있는 추자항을 이르느냐, 아니면 신양리에 있는 포구를 이르느냐 하는 것이다. 앞의 『남사록(1601-1602)』에는 ‘당캐’가 ‘별도’에 있다고 했는데 이 ‘별도’를 ‘추자도’(1999:81)지에서는 ‘하추자도’라 했다. 그런데 같은 책(1999:40)에 “추자도의 堂浦(대서리 포구)”라고 하여 ‘당캐’는 ‘대서리의 포구’라 했다. 그렇다면 ‘당캐’는 상추자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당캐’가 ‘하추자도’에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문헌과 고지도의 기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필자는 ‘身島(신도)’가 하추자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를 보면 ‘遊女島(유녀도), 身島(신도), 楸子(추자), 牛鼻(우비), 牟島(모도), 非叱巨里(비질거리)’ 등이 표기되었는데 방위상 ‘身島(신도)’가 下楸子島(하추자도), ‘楸子(추자)’가 上楸子島(상추자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872년의 「영암 추자도지도」를 보면 “상도의 둘레는 6리이고 하도의 둘레는 5리이다.(上島周回六里 下島周回五里)”라고 하여 상도가 하도보다 둘레가 큰 것으로 기록하였다. 앞으로 정밀한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다.

② 새뺨개·새뺨개[新基浦]>신양항(新陽港)

‘새뺨개·새뺨개[新基浦]’는 지금 하추자도 신양리 신양항(新陽港)에 있었던 옛 포구를 이른다. 『호구총수(1789)』에서 추자도의 한 마을이름으로 ‘新基(신기)’가 확인되고, 『조선지리지자료(1909)』에서 ‘新上里(신상리)’에 있는 ‘新基浦(신기포)’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에서나 기존지명자료집에서는 거의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는데, 북제주군·제주학연구소(2006:하권.455)에서 확인되는 ‘서태샘·세태샘, 세태신샘’ 등에서 ‘세태’가 그 단서를 제공한다.

新基(신기)는 ‘새터’의 훈독자 결합 표기이고, 新基浦(신기포)는 ‘새뺨개’의 훈독자 결합 표기이다. 앞의 ‘세태샘’과 ‘세태신샘’을 고려하면 ‘新基(신기)’에 대응하는 고유어는 ‘새터·새테’ 정도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新(신)은 '새'의 훈독자 표기, 基(기)는 '터'의 훈독자 표기, 浦(포)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신양항으로 개발되면서 옛 포구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③ 앞작제>무기 포구

'앞작제'는 묵리 포구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작제'를 이른다. 마을 앞에 있는 '작제'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근래에 이곳에 포구 시설을 해서 '무기(묵리) 포구'가 들어섰다.

④ 진작지>진작지 포구

'진작지'는 신양2리 포구 일대를 이른다. 바닷가를 길게 작지를 펼쳐져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이곳에 작은 포구가 들어섰기 때문에 '진작지 포구'라 한다. 이곳이 신양2리 포구이다.

⑤ 앞너둥이>예초리 포구

'앞너둥이'는 예초리 포구 일대를 이른다. 마을 앞에 있는 '너둥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너둥이'는 넓은 바닷가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지금은 예초리 포구가 만들어졌다.

⑥ 봉골레산[鳳頭山]

'봉골레산[鳳頭山]'은 상추자도 대서리 서쪽에 있는 산을 이른다. 민간에서 '봉골레산'이라 하는데 한자로 鳳頭山(봉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조선지리지(1909)』에서 '西村(서촌)' '鳳頭山(봉두산)'을 확인할 수 있다. 西村(서촌)은 대서 리 서쪽 '뒷멘[後浦]' 일대에 형성되었던 동네를 이른다. '봉골레산'과 '鳳頭山(봉두산)'이 대응하므로 '봉'과 '鳳(봉)', '골레'와 '頭(두)'가 대응한다. '봉'이 '鳳凰(봉황)'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골레'가 '頭(두)'의 뜻으로 쓰이는 말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산 모양이 새 머리같이 생겼다는 데서 붙었다고 하고 있다.

⑦ 대초나리>대추나리[大草津]

‘대초나리>대추나리[大草津]’는 상추자도 영흥리에 있는 나무를 이른다. 『조선지리지(1909)』에 ‘寺洞(사동)’에 있는 ‘大草津(대초진)’이 확인된다. 寺洞(사동: 절골)은 영흥리의 옛 이름이다. 민간의 음성형에서 ‘대추고개, 대추네미, 대추빈댕이, 대추짜제·대추짜지’ 등이 확인되는 데, 여기서 확인되는 ‘대추’는 ‘大草津(대초진)’에서 확인되는 ‘大草(대초)’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자 표기를 고려할 때 20세기 초반에는 ‘대초·대초(漕 대 초 조<훈몽 상 11>. 漕 대초 조<왜해 하 7>’)로 실현되었는데, 20세기 말에는 ‘대추’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津(진)은 ‘느릿>나리’의 혼독자 표기로, 추자도에서는 ‘나리’로 실현되었다.

‘대초나리’라 한 것은 눈에 띄는 대추나무가 서 있는 나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⑧ 나리머리지>나리머리재[津頭峙]

‘나리머리지>나리머리재’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사이를 이르는 지명이다. 『조선지리지(1909)』에 ‘默里(묵리)’에 ‘津頭峙(진두치), 나리머리지’로 표기하였다. 곧 한자 표기 津頭峙(진두치)는 諺文(언문: 한글)으로 ‘나리머리지’로 표기하였다. 그러므로 고유어 음성형은 ‘나리머리지’이고, 이를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이 津頭峙(진두치)이다. 그러므로 津頭峙(진두치)는 ‘진두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기존에 조사된 지명자료집을 보면 고유어 음성형보다 차용 표기 한자음이 우세하게 실현될 뿐만 아니라 설명 과정에서도 차용 표기 한자음이 주표제어로 등재되고 있다.

나리깎·진두깎, 진두머르(영흥리) / 진두, 진두잔등 <한글학회, 1996>
 웃진두작지, 아래진두작지, 웃진두, 아랫진두 <고영철·오성찬, 2002:84-87>
 나리깎·진두깍(津頭-)·진두깎(津頭-), 웃진두(-津頭), 웃진두짜지, 진도·
 津頭(진두), 진돗다리·진돗다리, 진두도와(津頭-), 진두머르(津頭-), 진두
 샘(津頭-), 진돗다리(津頭-) / 나리꽃이, 아랫진두(-津頭)·알진두(-津
 頭), 진돗동산 <북제주군·제주학연구소, 2006:하권. 406-428>

이상에서 '진두머르'가 바로 津頭時(진두치)에 대응하는 음성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리깎'과 '나리꽃이'에서 '나리'가 '津(진)'에 대응하는 고유어임을 알 수 있다. '나리'는 '느르(麻屯津 머튼느르<용가 1:39>. 津 느르 진 <훈몽 상 5>)'의 변음으로, 현대어 '나루'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리고 '머르'는 '頭(두)'에 대응하는 고유어로, '머리'의 변음이다. 『조선지지자료(1909)』에 보이는 '나리머리지'를 고려하면, '머르'는 '머리'의 변음임을 알 수 있다.

'나리머리'는 중세국어의 '느룻머리'(느룻머리/津頭 <두해-초 10:4>), 근대국어의 '느르'(津頭 느르<동해 상7>. 渡口 느르<한청 9:23>)에 대응하는 말이다.

'나리머리지[津頭時]'의 '지'는 '時(치)'에 대응하는 고유어로, 현대어 '제' 또는 '고개'에 대응하는 말이다.

⑨ 바람지>바람제[風峙]

'바람지>바람제[風峙]'는 하추자도 신양1리에서 예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이른다. 예로부터 유난히 바람이 많았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1909)』에 한자로 '風峙(풍치)'로 쓰고 諺文(언문: 한글)로 '바람지'로 표기하고, 지금도 민간에서 '바람제'라고 하므로, '바람지>바람제'로 소리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風峙(풍치)는 '바람제'의 혼독자 결합 표기이다.

7. 마무리

지금까지 추자면과 추자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추자도의 주요 지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자도는 제주목에 속한 섬이었으나 17세기부터 전라남도 영암군에 속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제주에 속했다가 다시 해남에 속하고, 다시 완도군에 속했다. 1914년부터 제주군 소속이 되어 지금은 제주시 추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추자도의 마을은 18세기부터 6~7개의 마을이 형성되었다가, 현재는 대

서리, 영흥리, 묵리, 예초리, 신양1리, 신양2리 등 6개의 법정마을이 되었다.

포구는 대서리와 영흥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추자항이 있고, 신양1리가 이용하는 신양항이 있다. 작은 포구로 묵리 포구, 진작지 포구, 예초리 포구 등이 있다.

추자면은 공식적으로 42개의 섬과 여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외에 작은 여도 발달해 있다.

<참고문헌>

고영철·오성찬(2002), 『44개 섬이 물 위에 뜬 楸子島』,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⑰, 도서출판 반석.

북제주군·제주학연구소(2005), 『북제주군 지명 총람(하): 구좌읍·조천읍·추자면·우도면』.

오창명(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오창명(2005), 『추자도와 사수도(泗水島)의 역사적 고찰』, 북제주군.

오창명(2006),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상·하)』,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6),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 핵심어: 추자면, 추자도, 대서리, 영흥리, 묵리, 예초리, 신양리, 차자표기

<summary>

Chuja-myeon and the Name of a Place

Oh Chang-meong

This writing to observe the transition of Chuja-myeon and Chuja Island, to research against the important the of report Chuja Island name of a place. The Chuja Island is a Island which belongs in the Jeju-mok, from 17 century which it belonged in Jeollanam-do Yeongamgun. It belonged again on 19 century latter halves to belong in the Jeju, It belongs again in the Haenam, It belongs again in the Haenam, it belonged again in the Wando-gun. it belonged From 1914 became the Jeju-gun and it belonged now in Chuja-myeon, Jeju-si. The village of The Chuja Island was formed from 18 century 6-7 villages, now is Daeseo-ri, the Yeongheung-ri, the Muk-ri, the Yeochori and sinyang 1(il)-ri, sinyang 2(i)-ri became 6 a legal villages. The inlets, there is a Chuja harbor which the Daeseo-ri and the Yeongheung-ri use with commonness, a Sinyang harbor which uses sinyang 1(il)-ri. A Muk-ri inlet, a Jinjakji inlet and a Yeochori inlet is small inlets. The Chuja-myeon officially with 42 Islands and the islets is become accomplished, a small islets is advancing other than.

- Key words: Chuja-myeon, Chuja Island, Daeseo-ri, Yeongheung-ri, Muk-ri, Yeochori, sinyang 1(il)-ri, sinyang 2(i)-ri, transcriptions of Korean with Chinese characters.